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아르테몬 사제순교자

사순절 제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성 자카리아 수사, 성 아르테몬 사제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10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 성인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1,10-2,3 / 봉독서 448
- 복음경 : 마르코 2,1-12 / 138. B 94
- 성모송(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224. A 17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아르테몬 사제순교자

매번 성찬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는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을 회개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도 부끄럼도 없이 평안히 신자답게 생을 마치어, 그리스도의 두려운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교적이며 의도치 않은 결말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 앞에서의 갈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나약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성인들의 투쟁에 대한 일화들을 접할 때 과연 우리도 박해를 겪을 때 순교자들과 같은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끝까지 증언한 순교자 중 한 분이신 성 아르테몬 라오디끼아의 사제(4세기)를 3월 24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몬 성인은 이교도들로부터 끔찍한 고문과 박해를 받았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순교자들의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총대주교님의 감사 서신

친애하는 형제 한국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

여러분의 성당을 생애 4번째로 방문한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그 때 받은 감동과 깊은 인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주교님과 여러 성직자들 또 봉사하시는 협력자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역 성당들의 발전을 보며 영적 기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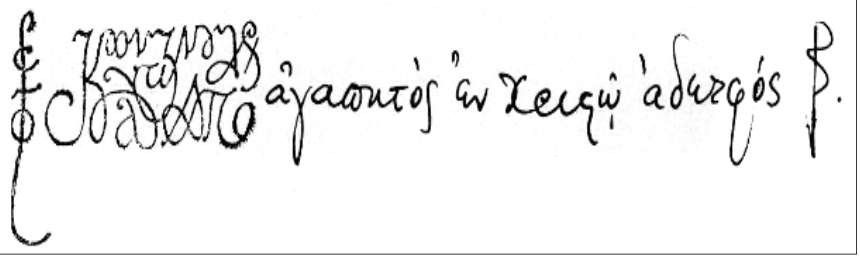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 목자와 양들 간에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의 헌신과 사랑을 보았으며 반대로 대주교님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대교구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보았고, 한국 정부의 대우, 국민들의 친절함, 한국의 다른 종교들이 정교회를 대하는 우정 어린 모습도 잘 보았습니다. 세계총대주교좌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모범이 되는 세계총대주교 관할 교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형제여, 이 모든 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저와 또 동행했던 분들을 위한 당신의 배려와 준비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문에서 느꼈던 경험과 즐거운 기억들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의 보호와 섭리 안에서 한국교회의 성직자들께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며, 세계총대주교청의 호의를 표현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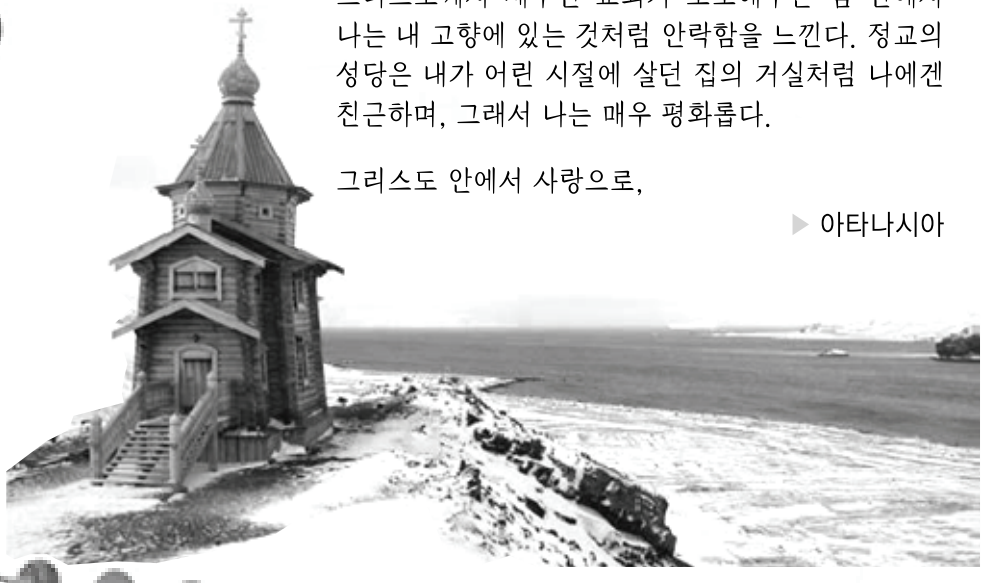
자기의 진정한 집을 정교회 안에서 찾기

트리폰 수도원장

정교의 가르침에 입문한 뒤로 내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정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지금껏 그대로 보존되어온 교회이며, 이 교회의 첫 주교들은 사도들 자신인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다.최종적으로 완전히 보존되고 지켜져온 이 교회는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아니며, 그저 단지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나는 동방 그리스도인들의 이국적(異國的)인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고대교회의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보호해주는 담 안에서 나는 내 고향에 있는 것처럼 안락함을 느낀다. 정교의 성당은 내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의 거실처럼 나에겐 친근하며, 그래서 나는 매우 평화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 아타나시아



부산 성모 희보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3월 25일(월) 축일을 맞이하는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하면서,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과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충만한 은혜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정교회 출판사 신간 안내

존 메이엔도르프 사제의 저서 『헤지카즘의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가 출판되었습니다. 정교회 수도 영성인 헤지카즘 전통과 정교회의 교리 전통을 종합한 위대한 교부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의 신학과 영성을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대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주일에 맞춰 성인에 관한 책을 출판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대사순절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그레고리오스 성인에 관한 이 책을 읽으며 평화와 기쁨의 부활절을 향한 대사순절의 여정을 더욱 알차게 보내시길 빕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 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편`에 대한 강의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성모 기립 찬양 예배 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시편'에 대한 강의를 5주에 걸쳐 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과 한 구절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계속해서 시편의 주요한 구절에 대해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정교 주일 성찬예배

지난 3월 17일 정교 주일을 맞이하여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집전으로 크리스토퍼 신부와 요한 박인곤 보제가 함께 축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예배 끝 부분에 모든 신자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성화를 들고 정교 주일을 기념하는 성화 행렬을 하면서 성당과 주변 이웃들에게 정교회의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면서 세계총대주교님의 4번째 한국 방문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으로부터 영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당에서 참회의 만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대사순절을 맞아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 제3주간 예식

- 3월 25일(월) 성모 희보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27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29일(금) 오후 6시 : 성모 기립 찬양(제3스타시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주십시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